

“한국 수묵” 대중화·브랜드화 하자

2018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D-2

김상철 총감독 언론 공개 행사
방치되고 수렁에 빠진 '수묵'
전통·현대 공간서 정리하며
미래가치 확립하는 자리
지역발전 동력 계기 찾을 것



29일 목포시 목포문화예술회관 비엔날레 1관에서 열린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큐레이터가 조중성 작가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오늘의 수묵, 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수묵비엔날레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1일간 목포·진도 일원에서 15개국 271명 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수묵비엔날레의 목적은 수묵의 대중화, 브랜드화, 미래가치 확립입니다.”
2018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상철 총감독은 29일 “비엔날레를 통해 수묵이 본래 가졌던 동양회화의 적자이자 실체로서의 존중과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16면)
김 총감독은 이날 목포문화관에서 열린 국제수묵비엔날레 언론공개 행사(프레스데이)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묵을 단순한 미술, 폐쇄된 장르로 이해하지 말고 대중적으로 접근해 지역발전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를 찾겠다”고 말했다.
중국, 일본과도 다른 빼어난 한국 수묵을 브랜드로 만든다는 시도가 다음 목적으로 제시됐다. 김 총감독은 “이번 행사는 ‘수묵화’ 비엔날레가 아니라 수묵비엔날레”라며 “수묵화는 종이에 먹으로 그린 그림이지만 최근에는 과학 문명과 결합해 설치미술, 미디어, 가상현실(VR)까지 영역을 넓혀 수묵화라는 명칭으로는 작품을 모

두 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묵의 영문표기와 관련해 “대형 백과사전에는 ‘인디언 잉크’라고 등재됐고 중국에서는 ‘차이니스 잉크’라고 부르지만 동의할 수 없다”며 “한자라는 재료와 결합해 실질적 측면에서 현대미술로 전향해 온 것을 차별화하기 위해 ‘Sumuk’이라는 영문표기를 쓰는 ‘정명 운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수묵은 역사적 유물이어서 존중돼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현대사회의 질문에 물질이 아닌 정신을 강조하는 미래가치를 던져주려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수묵의 입지에 대해서는 ‘결여’된 상태인 ‘꽃병 속의 꽃’에 비유하며, 원로는 있는데 젊은 사람이 없는 현실, 개회 장소인 목포·진도에 미술관이나 미술대학조차 없는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김 총감독은 “첫 수묵비엔날레는 그동안 방치됐던 수묵을 ‘전통’과 ‘현대’라는 수납 공간을 만들어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묵비엔날레는 손님맞이 연습이었고, 이번에는 2개의 큰 공간에 수묵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담은 출발이며 다음에는 수묵의 정신을 담아 미래를 밝히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이번 비

엔날레는 수렁에 빠진 수묵을 끄집어 내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며 “그래서 참여작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국제수묵비엔날레 개막식은 31일 오후 5시 목포문화예술회관 실내공연장에서 열린다. 전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1일간 목포 문화예술회관, 진도 운림산방 등 6개 전시관에서 진행된다. ‘오늘의 수묵-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를 주제로 15개국 271명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며, 수묵 전시 외에도 국제 레지던시, 학술회의, 교육 체험 행사도 펼쳐진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시골 판사’ 된 박보영 전 대법관 사법 역사 최초...여수 시·군법원서 소액사건 전담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사진) 전 대법관이 서민 재판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법관직을 다시 수행한다. 대법관 등 최고위급 판사출신이 시·군법원 판사로 임명된 첫 사례다.
대법원은 2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1일자로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에 임명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지원의 1심 소액사건 전담 판사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이 순천출신인 점을 고려해 근접한 여수지원으로 전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1년 순천에서 태어난 박 전 대법관은 전주여자고등학교를 거쳐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봉사하는 자세로 여수지원 판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짧은 소감을 전했다.
지난 1월 2일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그동안 변호사 개업 대신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연구업무를 해왔다. 이후 지난 6월 재판업무 복



귀 희망 의사를 밝히고, 법원행정처에 법관 지원서를 제출했다.
광역시지정단체가 아닌 지역에 설치된 시·군법원은 소송금액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이 대부분이다 보니 법조 경력이 풍부한 원로 법조인 상당수가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법원은 1995년부터 원로변호사 등을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했으며, 지난해 2월부터는 법원장을 지낸 고위법관 중 희망자를 원로법관으로 지명해 시·군법원 재판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퇴임 대법관이 1심 재판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1심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상급심도 1심 재판을 더욱 존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신안군, 갯벌 습지보호지역 확대·지정

총 1100.86km²...서울시 면적 약 2배

신안군이 신안 갯벌 습지보호지역을 대폭 확대, 지정한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면적은 약 1100.86km²로, 서울시 면적(605km²)의 약 2배 규모다. 기존 습지보호지역은 중도 갯벌(31.30km²)과 비금-도초 갯벌(12.32km²) 2곳으로, 총 면적 43.62km²였다. 습지보호지역을 확대 지정하면서 명칭도 ‘신안갯벌’로 통합된다.
신안군은 간척과 매립 등으로 전체 갯벌 면적이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2.4%(약 716km²) 감소하는 등 갯벌생태계가 점차 훼손됨에 따라, 갯벌생태계 보전을 강화하고자 2010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신안군은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 생태관광 활성화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해부터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안)’을 마련,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갯벌은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는 곳으로, 특히 법적 보호종의 서식지로서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안군의 판단이다.
신안 갯벌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유산명 ‘한국의 갯벌’)를 추진하는 점도 고려했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대상 갯벌은 신안, 보성별교, 순천만, 서천, 고창 갯벌이다.
신안군은 확대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2019년 12월 말까지 보호지역별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해양생태계 보전을 토대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습지보호지역 확대와 관리 강화를 희망하는 선순환 관리구조를 만들 생각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진전 없다” 靑 “한미훈련 협의, 비핵화 상황 보며 결정”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8월중 설치될 목표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한 협의에 진전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현재 특별히 진전된 사항이 없다”면서 “현재 남북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고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일정 등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8월 개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재 남북 간에 개소 일정 등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여지를 뒀지만 8월 개소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좀처럼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 데다, 북한도 정권수

립입(9월 9일) 70주년 준비에 힘을 쏟다 보니 연락사무소 개소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백 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가 연락사무소 개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현재 한반도 상황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등이 상호 순환해서 돌아가고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그는 9월 중 하기로 한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 등 질문에는 “일단 일정이 잡혀야 된다”면서 “일정이 잡히면 실무적인 협의들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9일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시사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 상황을 보면서 한미 간에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매티스 장관의 언급에 대해 “현재로서는 한미가 이 문제를 논의할 적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한미 간에 협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재개 문제를 논의하지는 미국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요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으며 “올해 초 한미연합훈련 유예 결정 당시 언제까지 훈련을 유예하기로 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당해 군사훈련에만 적용됐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비핵화 진전이 없는데 9월 평양 정상회담을 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북미교착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관을 돌파하는 데 남북정상회담 역할이 더 커졌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센토사 합의에서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지에 흔들림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그런 점에서 볼 때 두 정상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는 기대가 더 커지면 커져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전국·임야!

바로 삽니다, 지분물건 환영.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6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을 볼.

무료 공개 강의 일시
조선대 : 9월 6일(목) / 주간 3시, 야간 7시

2018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8월 1일 ~ 2018년 8월 31일
- 교육기간 : 2018년 9월 6일 ~ 2018년 12월 13일
매주 목요일 주간 3:00~5:00 · 야간 7:00~9:00
- 수 강 료 : 22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문의 : 062)230-7700~2
- 상담지도교수 : 연락처 010-9416-1200

2018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27기)	광주교육대학교(18기)
개강일시	목요일 오전반: 2018. 9. 6.(목) 09: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8. 9. 8.(토) 09:10 (특급반)	금요일 오전반: 2018. 9. 7.(금) 09: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8. 9. 8.(토) 14:10 (중급반)
모집기간	2018. 8. 1(수)~9. 8.(토)	2018. 8. 1(수)~9. 8.(토)
수업기간	2018. 9. 6.(목)~2019. 2. 9.(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8. 9. 7.(금)~2019. 2. 8.(금)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학원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병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수 (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선봉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선봉공):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광주 시민을 위한 무료 大 특강 토지 투자 유망지역

부동산 이곳에 투자하라!
99% 적중률! 누구에게나 속사~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방향제시!!

장 소	광주상공회의소 지하1층
일 시	2018. 9. 4(화) 오후 2시, 7시
문의전화	1899-4267 · 010-5632-5209

※사전 예약 필수

제1 강의 ▶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한방에 끝내기

- 수익형 부동산의 과학적 투자기법 분석법 공개
- 수익형 부동산 유형별/물건별 분석 및 투자노하우 전수
- 입지분석/가격분석으로 돈되는 물건 선별방법 공개
- 광주·전남지역 최고의 입지와 실투자 매물 전격공개

제2 강의 ▶ 전라남도 개발계획에 따른 투자 유망지역 분석

- 농지법 개정에 따른 투자전략
- 부자로 잘 사는 농지투자전략
- 농업인 투자법과 투자대상 및 물건분석
- 미래가치 확실한 개발지 제대로 파악하는 노하우 공개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가 전문가

MTN메이데이-김성민의 비즈정보쇼
(2017년 우수기업 선정 방송)
(2017년 스포츠 서울 혁신 한국인 선정)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LBA방송기자
(현) 각종 방송 및 대학교 초빙 특강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20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강의
뉴스케이 인터뷰쇼팀 촬영, 개재중